

‘경찰의 날’ 어르신에 음악봉사 ‘광산 풀 음악사랑’

주민 사랑받는 5인조 경찰악단 “바쁘다 바빠”

“질서유지와 치안 확보는 기본! 이제는 어르신들께 음악으로도 봉사를 하겠습니다.”

20일 낮 12시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송광종합사회복지관에 신명나는 노래가 울려 퍼졌다. 경찰의 날을 하루 앞두고 경찰관으로 구성된 음악동호회 ‘광산 풀 음악사랑’이 관내 노인들을 위한 음악봉사 공연을 개최한 것이다.

100㎡(30평) 남짓한 지하 1층 소강당에 빠곡히 들어앉은 노인들은 이날 하루 가수로 변신한 5명의 경찰관이 선사하는 노래에 빠져 들었다. 노인들은 신나는 트로트 가요가 울려 퍼질 때 어깨를 들썩거렸고 잔잔한 멜로디가 스피커를 통해 전달될 때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이날 공연에는 지난해 ‘사랑의 신호등’이라는 정규 앨범을 발표하고 가수로 활동 중인 광주광산경찰서 동곡파출소 김민성(52) 경사는 공연이 단연 인기를 끌었다. 흰색 정장을 입고 잔뜩 멋을 부린 민 경사는 앨범에 수록된 ‘어찌합니까?’ 등을 불러 노인들에게 호응을 받았다.

공연 진행을 맡은 동호회 회장 정성태(53) 경



경찰의 날을 하루 앞둔 20일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송광종합사회복지관에서 관내 노인들을 상대로 광주광산경찰서 소속 ‘광산 풀 음악사랑’ 동호회 경찰관들이 위문공연을 열고 있다.

위는 사투리와 농담을 섞어가며 춤연진을 소개

가수로 나선 동료 경찰의 무대를 둔보이게 한

조순봉(41) 경사의 드럼반주, 목소리와 연주의

/위직기자 jrwi@kwangju.co.kr

강약을 조절하는 정유진(48) 경위의 섬세한 손놀림이 어우러져 공연장의 열기는 식을 줄 몰랐다.

마지막 순서로 ‘광산 풀 음악사랑’ 동호회 소속 5명의 경찰관이 ‘어머니의 응례’를 부르자 장내는 일순간 고요에 잠겼다. 의자에 앉아 있던 노인들 일부는 흐르는 눈물을 연방 밖아내거나 노래를 따라 불렀다.

기타를 맡은 박양주(43) 경사는 “어르신들이 음악공연을 관람한 후 전하는 감사의 인사와 표정을 잊을 수 없어 매월 복지시설을 찾고 있다”며 “경찰의 날을 맞아 공연을 갖도록 배려해준 동료경찰과 즐겁게 공연을 관람해 주신 어르신들께 고맙다”고 말했다.

경찰의 날을 맞아 음악봉사공연을 준비한 광산경찰서 소속 ‘광산 풀 음악사랑’은 20명의 창단 멤버로 지난 2006년 결성된 뒤 매월 한차례 이상 관내 복지시설을 방문, 음악봉사를 펼치고 있다.

공연 신청이나 문의는 광주광산경찰서 경무과 062-941-1112로 하면 된다.

/김경호기자 khh@kwangju.co.kr

에덴병원, 인재양성 장학금 1천만원 전달



광주 에덴병원(원장 허정·사진 왼쪽에서 네 번째)은 20일 북구 청을 방문해 지역의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해 써달라며 장학금 1천만원을 (재)광주북구 장학회 송광운 북구청장에게 전달했다.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CMB 광주방송 협약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센터장 신선호·사진 왼쪽에서 네 번째)는 최근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CMB 광주방송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양 기관은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정규 편성 등 시청자의 방송참여 확대를 위해 협력구조를 구축하기로 했다.

“참다운 행복은 마음속에 있어 번뇌하지 않으면 누구나 행복”

티베트 텁텐 가초스님



이번 법문에서 스님은 ‘히피’에서 ‘승려’로 탈바꿈하기까지의, 한편의 드라마 같은 인생 여정과 그 과정에서 깨달은 ‘행복에 이르는 길’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광주를 처음 찾은 텁텐 가초스님은 호주 출신으로 몽골 울란바토르의 불교교관에서 삼임법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2000년에 이어 두 번째로 방한해 서울 인사동 불교영어도서관, 부산 흥법사, 청도 운문사 등 전국을 돌며 강연을 펼치고 있다.

‘히피에서 승려로’라는 그의 특이한 인생 여정은 지난 3월 ‘티베트 승려가 된 히피의사’(호미 펴냄)가 국내에 번역·출간되면서 알려졌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조선이공대 김문교 등 6명 ‘쌀음식 대전’ 단체부문 대상

25일 광주 무각사 강연

‘백인 히피 의사’ 출신의 티베트 불교 수행자로 유명한 텁텐 가초스님(66·사진)이 오는 25일 오전 11시 30분 광주 상무구 무각사(주지 청학 스님)를 찾아 ‘참다운 행복과 평화에 이르는 길’에 대해 법문한다.

광주를 처음 찾은 텁텐 가초스님은 호주 출신으로 몽골 울란바토르의 불교교관에서 삼임법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2000년에 이어 두 번째로 방한해 서울 인사동 불교영어도서관, 부산 흥법사, 청도 운문사 등 전국을 돌며 강연을 펼치고 있다.

‘히피에서 승려로’라는 그의 특이한 인생 여정은 지난 3월 ‘티베트 승려가 된 히피의사’(호미 펴냄)가 국내에 번역·출간되면서 알려졌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가수 최백호 첫 미술전시회



“(정식으로 그림)공부 안 한 것치고는 그림이 괜찮은 것 같은데요, 하하”

21~27일 서울 인사동 갤러리에서 자신의 첫 개인전을 여는 가수 최백호(59)는 자신의 그림에 대해 이렇게 자평했다. 지난해 국립의료원 NMC미술관에서 열린 연예인들의 단체 작품전에 기타를 출품한 적은 있지만, 화가로서 온전히 자신의 이름을 걸고 대중을 만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그렸어요. 공부를 따로 하지는 않았고… 중학교 때 미술반을 했던 정도였죠. 그러다 고등

학교 때부터 그룹 활동을 하면서 손을 놓긴 했지만, 꾸준히 그림은 그려왔어요”

전시회에 나오는 26점의 아크릴화는

기타를 치며 마이크 앞에서 노래하는 자신의 모습을 담은 자화상 1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나무를 그린 것이다. 최근 드라마에 출연하는 등 새로운 분야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는 벌써 또 다른 변신을 꿈꾸고 있다.

/연합뉴스

영어권 외국인 환자 소통 원활

전남대병원 영문판 책자 발간

전남대병원 간호부(부장 최영자)는 최근 영어권 외국인 환자를 돋보이기 위한 영문판 책자 ‘Nursing Foreign Patients’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증가는 영어권 외국인 환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그동안 각 진료과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상황을 중심으로 초진 접수에서부터 진료, 검사, 투약 과정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필요한 외래 간호사들의 영어 응대 지침서이다. 최영자 간호부장은 “외래 진료과정에서 접할 수 있는 상황을 상세하게 담았다”며 “업무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외국인 고객과의 의사소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대한병리학회 차기 회장에



서재홍 조선대병원 원병리과 교수가 최근 서울 임페리얼 팰리스에서 열린 대한병리학회 제61차 추계학술대회에서 대한병리학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 오는 2010년 1월부터 1년간 학회를 이끈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화족

▲김명순씨 장남 양재영군 신혼수(평동주유소·백암주유소 대표)·서덕례씨 장녀 신희양=24일(토)

낮 12시30분 웨딩의전당 콜롬버스 2층(노블레스호)

▲정근재·임화주씨 차남 협준(인천세무서)·김동현(전 전남일보 사장부국장)씨 장녀 도희(신창초 교사)양=24일(토) 오후 1시 메리어트웨딩홀 1층(파이어홀)

▲김승완·임종심(불천어집)씨 장남 동희군 민경남씨 장녀 수정양=24일(토) 오후 1시 웨딩의전당 금호 30층(아시아나홀)

▲유병호(남순천의원 원장)·이순복씨 아들 재철(전공수련의)군 김용하(광주교교장)·노명란씨 딸 미나(약사)양=24일(토) 오후 1시30분 광주 무등파크호텔 4층(컨벤션홀)

동창·동문회

▲광주보건대학사회복지과 동문회(회장 김운기) 정기총회=24일(토) 오후 6시 한국토지공사빌딩 11층(삼성생명) 016-611-2858.

▲우상준씨 장남 지훈군 오태홍씨 장녀 미희양=25일(일) 오후 1시 50분 갤러리아웨딩컨벤션 2층(크리스탈홀)

▲최영옥·선후자씨 막내 상주(광주롯데백화점 흥보팀장)군 박래선·김안숙씨 장녀 진영양=25일(일) 오전 11시20분 조선컨벤션 1층(춘추관)

▲곽윤연·박순철씨 장남 성호군 최현주(광주환경녹지국장)·김숙희씨 장녀 혜미양=11월1일(일) 오후 3시30분 서율법원종합청사에식

종친회

▲창원황씨 광주·전남종친회(회장 황양선) 강원도 철원 세정원 세화참례=24일(토) 오전 8시 광천동 미널 건너편 출발.

모집

▲김 양식장·김 공장·선원 일하 실 분 모집=초보자·경험자 우대, 7명 굽구함, 숙식제공, 남구 백운동

백운광장 백운파출소 부근 062-671-3693.

▲광주시립민속박물관 ‘편지꽃’이 만들기’ 체험학습=24일(토) 오전 10~12시, 한지를 이용해 편지꽃이를 만들어보는 전통공예 교육

프로그램, 학부모를 동반한 초등 2~6학년 40명(20팀). 062-521-9041.

▲광주시 한부모 가정지원센터 합창단 모집=불행한 가정의 통합과 소통, 격려를 위한 혼성 합창단 모집. 062-675-5955.

▲수공예 문화센터 회원 모집=리본공예·비즈공예·한지공예·CA방과후지도사 전문 자격증, 취미반, 창업반 모집(1대1지도), 비즈공예·리본공예에는 무료수강. 수공예 협회서부지구지부(구 송원대학 정문) 062-367-1040, 010-7942-6597.

▲전남답양지역 자활센터 자활근로 참여자 모집=답양거주자이면서 조건부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층 근무, 식품유통, 도자기, 집수리 등. 061-383-9909.

부음

▲박승구(전 광주일보 부국장·파리특파원)씨 별세 최희경(상무중교사)씨 상배 준영(전남대 의대생)·준선(대학생)씨 부친상=발인 21일

(수) 전남대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062-220-6983, 017-605-1331.

▲문귀남(전 대동고교장)씨 별세 인성(조대병원 내과의사)·찬석·인숙씨 부친상=발인 21일(수) 무등장례식장 203호. 062-515-4488.

▲주옥자씨 별세 박희상(안산미즈피아 산부인과)·희미·희애씨 모친상=발인 21일(수)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231-8901. ▲주옥자씨 별세 박희상(안산미즈피아 산부인과)·희미·희애씨 모친상=발인 21일(수)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231-8901.

